

## 컵라면 용기, 농수축산식품 받침접시도 재활용합시다!



김천주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수**퍼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생선, 야채 등은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쓰레기를 버릴 때는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식품의 받침접시로 쓰인 스티로폼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야 하지만 부피가 커 쓰레기량이 많아지는 부담을 주고, 한편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컵라면 용기, 농수축산 식품의 받침접시와 같은 식품포장용기 등 1회용 스티로폼 제품은 한해에 10만여이나 생산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하여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티로폼(PSP) 식품포장용기는 일반 스티로폴(EPS)과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낭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이러한 스티로폼 용기의 부피가 큰데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낭비하는 부담까지도 안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품이 개발, 보급되기 전까지는 분리수거 후 재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우리 단체에서는 이같은 스티로폼(PSP) 식품포장용기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양친구청, 1회용품 관련 사업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 분리 회수 및 재활용 운동」을 시작하였다. 컵라면 용기, 농수축산 식품 받침접시, 도시락 용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를 분리수거하여 재생 원료나, 건축자재 및 사진 액자 등으로 만들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높여가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종량제 봉투 사용과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생 원료나 사진 액자 등의 최종 제품 생산·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재 수입 억제를 통해 외화 낭비까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눈부신 산업·경제 발전을 이룩한 20세기의 가장 큰 과오는 환경을 외면한 외국의 발전이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제품이 생산되어야 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용 방안도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환경 운동은 실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정부·기업·환경단체·소비자 모두가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고, 원활한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